

“중단 없는 지역발전...체감하는 삶의 변화 이끌겠다”

김병내 남구청장 민선 8기 구정 비전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넘치는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창의와 도전, 소통과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선 7기는 미래 발전을 향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약하고 성장하기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으로 '2030 남구 그린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고, 무장애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해 포용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편집자 주

경제교육문화 특구 건설 총력
복지서비스 7979봉사단 확대
근대역사문화 관광로드 구축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7일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통해 22만 주민들 모두가 행복하면서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강조한 이유는 남구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구

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김 청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4대 도시’ 비전을 내세우며 ▲광주를 대표하는 경제도시 ▲공교육을 강화한 교육문화 선진도시 ▲세대와 계층이 모두 잘사는 으뜸 복지도시 ▲사람과 환경이 중심 되는 안전도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에 경제를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교육문화가 꽃을 피우는 ‘경제교육문화 특구 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남구는 그동안 교육문화 특구로만 알려져 있는데, 공직자들은 지난 4년간 국가 및 지방산



단 조성과 광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제산업 기반을 꾸준히 닦았다”며 “민선 8기에는 경제를 더 해서 경제교육문화 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경제도시 분야와 관련해선 “남구 발전의 축인 백운광장과 양림·사직·방

림2동의 뉴딜사업, 동네마다 들어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대촌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등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을 잇는 근대역사문화 관광로드를 구축하겠다”며 “송암산단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민·관·학 협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교육문화의 품격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으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복지 7979센터 및 찾아가는 7979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사랑나눔센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경로당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 기업하기 좋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청장은 “현재 대촌동에는 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남구가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육성과 경영안정 대책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으로 2030 남구 그린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고, 특색 있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축제를 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며 “금당산 둘레길, 시립수목원, 효천 초록보행길 조성으로 녹색공간을 늘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람과 환경이 중심 되는 안전도시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며, 중단 없는 발전 속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기필코 만들겠다”면서 “모두의 행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7일 광주시 남구청 종합민원실 대형 모니터에서 민원인들이 7가지 종류의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남구 제공

종합민원실 민원대기 현황 알림 시스템 구축

대형 모니터 실시간 상황 제공

광주시 남구는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성 확보와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민원대기 현황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는 7종

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순번 대기표 발급기 2대를 각각 운영했으나 민원인 착오로 다른 창구의 대기표를 뽑아서 무작정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남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 대기 통합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기 시간 예측이 어렵고, 해당 창구에서만 호출번호 확인이 가능해

창구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민원 대기 통합 알림시스템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여권과 일반민원, 통합제증명,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실거래, 지적측량 등 각 창구에서 진행되는 7가지 종류의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9월까지 전수조사

광주시 남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지역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 3,463세대 ▲2019년 2만 4,558세대 ▲2020년 3만 1,835세대 ▲2021년 3만 4,089세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5월) 1인 가구 수는 3만 8,130세대

로 4만여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남구는 가족해체 등 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남구는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더욱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1인 가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사회적경제 멘토링 ‘이지클래스’ 운영

마을 활동가 등 주민 30명 참여

광주시 남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자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지클래스’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 전 준비교육 및 예비 사회적 기업가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지

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 활동가와 청년, 퇴직자 등 주민 3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단계 과정으로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과정 및 심화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소규모 그룹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협동조합 사업모델 수립과 사업 계획서 작성 과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또 기초과정 및 심화교육을 완료한 주민들은 7월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학습 및 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민찬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중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G 골드클래스(주)
B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